

학교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 처리 실태 및 개선을 위한 소고 : 세종시 공립학교 공문서 처리행태를 중심으로

권혁준¹⁾

순천대학교 사무국

〈요약〉

본 연구는 학교 안전 관련 관심과 대응 정책이 증대되는 시점에 학교 내 CCTV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교사와 행정직원들의 CCTV에 대한 행동양태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교직원의 공문처리 행태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교육당국의 여러 시도를 통해 드러난 주요 시사점을 비교분석하였다.

학교급별·교직원별 영상정보처리기기관련 업무 배분을 정량적인 자료, 즉 공문처리에 의한 행정행위의 결과를 원시자료로써 활용하면서 변화를 파악하였다.

교육청 공문서에 의해 단위학교의 행동양태의 유의미한 변화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첫째 학교급별로 개인정보 관련 공문처리자 지정 시 행태의 변화도가 높았다. 둘째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유아안전관련 공문처리자 지정 시 공문서에 의한 변화도가 낮았다. 학교급별 교직원의 CCTV 업무 처리행태를 공문서 접수처리를 통해 차이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 내 민감한 주제인 CCTV(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였으며, 진행된 자료나 조사 내용은 구체적인 상기주제를 다룬 행정 절차와 관련 규정 등의 내용이다. CCTV(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라는 민감한 주제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 해결책 모색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교육청과 학교현장의 명확한 업무분장을 위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영상정보처리기기, 교직원 갈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 CCTV, 학교행정

1) 교신저자, hckwon@snu.ac.kr

I. 서론

학교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애매한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교사와 행정직원 사이에서 소관업무의 경계를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정보업무나 보건위생업무, 학교 안전업무 등 교육과 행정의 경계를 구분하기 모호한 영역이 있다. 특히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으로 불리는 영상정보처리 기기도 교무실과 행정실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른바 경계(境界)업무 가운데 하나이다.

학교에서는 화재예방이나 시설물관리와 안전하게 배움을 제공하기 위해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얼굴 식별이 가능한 고화소 카메라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기 위해 관련 예산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학교 및 유치원에서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교직원이며, 영상정보처리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역할분담도 고성능 영상정보처리 기 도입과 함께 중요하다.

하지만 영상정보처리기와 관련한 구성원 간의 갈등이 고조되어 연구보고서나 언론보도에 등장하기도 하였다. 학교 내부에서 협의에 실패하여 외부로 돌출된 갈등을 해결해야 할 교육당국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갈등은 더 심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내부 구성원 간의 갈등 현상을 분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학교내 업무로 발생하는 교직원들의 갈등이 경험부족만이 아니라 공문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학교행정에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교사의 자질 못지않게 중요하며, 원활한 학교행정의 수행을 위해 교사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학교 행정실, 교육청 차원의 행정 추진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학교내 고화소 감시 카메라 설치와 병행하여 이를 운용하는 주체인 구성원

간의 협력과 외부지원조직인 교육당국의 학교내 갈등 원인 파악과 학교급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처방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 사례 공유도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실험에 필요한 데이터를 실제 행정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실험대상에 영향을 가하여 학교급별 구성원의 행위결과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자가 측정하려는 계(System)를 통할하는 위치에서 계를 공명(共鳴)시켜 충격에 대한 응답을 측정하여 공명 이전과 후의 변화를 측정하여 계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직원 간의 갈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데 있다.

향후 이 결과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및 그 밖의 학교 안전 관련 행정업무 처리 및 분장에서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사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처리 행태를 세종시교육청 관내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이하 "학교급" 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파악하였다. 그동안 학교급에서 CCTV 업무에 교직원 간 분쟁사례가 단편적으로 소개되었으나, 학교급별 교직원의 업무처리 실태를 시·도교육청 단위로 계량화한 자료는 보고되지 않았다. 본 고에서는 교사와 행정직 공무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처리행태를 공문서 처리결과를 파악하여 교육현장에서 이뤄지는 업무처리 과정을 간접적으로 파악하였다.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공문서 접수 및 처리자의 신분을 파악하여 학교급의 구성원 간 행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은 세종시 관내 공립 학교급 123개교이며 사립학교(원) 및 특수학교, 학교병설 유치원은 제외하였다.

연구과정에 파악된 공립 학교급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관련 공문서를 접수 및 처리자는 부장교사(국가 공무원), 일반교사(국가 공무원), 행정실장(지방 공무원), 주무관이라고도 불리는 행정직원(지방 공무원), 교무행정사(비공무원, 공무직) 등으로 다양하였다. 이들이 처리한 사례별 공문서 처리행태를 확인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경향성을 파악하였다.

II. 예비적 고찰

1. 학교내 갈등

가. 학교조직의 복잡성

개인 및 집단의 이해(interests)와 선호(preferences)의 연합체가 조직이다. 집단 내 구성원 간에 상존하는 가치와 현실인식의 차이가 갈등의 원인이 된다. 역할갈등이론(role conflict theory)은 자신과 타인의 기대가 불일치 시 갈등이 발생한다고 한다(장덕호, 2007).

엄홍식(2018) 및 노선경(2018)은 학교에서 발생한 교직원 간 다양한 갈등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학교에는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와 함께 전문영역의 교사, 행정직원, 그리고 교직원이나 학생을 지원하는 인력 등 다양한 구성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직원의 직무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직무상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김성기, 2013).

한편,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정책의 과정에서 교사의 업무가 행정실로 이관되기도 하여 구성원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나. 학교 조직의 이질성

공립 학교급의 구성원은 인적 이질성이 크다. 미성년자인 유아나, 학생을 제외한 교직원의 경우 입직 경로와 직무가 다른 교사와 행정직 공무원 및 학교 회계 직원들로 구분된다. 구성원 집단 간 서로 상이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이에 기인한 구성원 간 업무소관의 모호성은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박종관, 2018).

학교조직은 학교장을 중심으로 교무(실)와 서무(행정실)로 구분된 이원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감과 행정실장은 각각의 조직을 총괄하며 교무실은 교무부, 연구부 등과 같이 세분화되어 있다. 또한 교무조직은 학교장, 교감, 교과

담당 교사와 학급담당 교사로 이어지는 계선조직과 업무영역별 교무행정을 수행하는 부장교사로 구성된 참모조직이 있다(우상수, 2014).

교무조직과 행정조직은 직무의 특성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의 특성, 적용 법률, 채용조건, 운영 원리 등에서 다르다(배병룡 외, 2006). 교장에게는 통할권과 감독권이 부여된 반면 교감에게는 관리권이 부여되어 있다(신현석, 2013). 교사는 법령에 따라 학생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에 필요한 부차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과중한 업무로써 인식되는 학교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컴퓨터와 같은 속성을 가지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정보의 관점에서 관리되어야 할 기기이다. 하지만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안전분야의 해결사로서 인식되어 안전담당교사가 관리하기도 한다.

한편 교육부는 교감은 교육부 2015년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총괄하는 학교안전책임관(Chief safety officer)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서별로 분산하여 분장하고 있는 안전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기능을 일원화하고 이를 안전부장이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학교폭력담당인 안전부장교사나 개인정보담당인 정보부장교사가 영상정보처리기기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직경력이 많은 부장교사가 여러 해 동안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지방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정도로 교직경력이 적거나 담당자가 자주 변경될 경우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담당자가 운영의 미숙에 따

라 이해관계자에게 법적 소송을 당하거나 막무가내식 행동에 고통을 당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 반면, 학교의 경우 학부모로부터 민형사상 고소를 당하는 교직원이 있다는 것이 구별되는 차이이다.

양질의 수업을 병행하면서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지고, 수십 대의 구식 CCTV 카메라에서 모니터에 뿌려지는 영상을 눈이 빠지도록 지켜보라고 강요받는 교직원 고충도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는 소지품 분실이나 학교폭력 등 내부직원이나 학부모 등의 잦은 열람요구에 따른 공개여부검토와 대응으로 여타 업무에 비해 업무량이 많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처럼 누구든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가 아니면 통화내역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규정과 같은 엄격한 제한이 없는데 그 원인이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녹화기와 수십 대의 카메라로 구성된 복잡하고, 고장이 잦은 전자기기이다. 감시 카메라가 수시로 고장이 나거나, 녹화가 되지 않아 영상이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이에 따른 책임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에게 부가된다.

우리는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사물의 자동화가 구현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위험상황을 자동으로 인지하고 통보하는 기능을 가진 대기업에서 생산한 고가의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구매할 예산이 충분하더라도 현행 정부조달규정에 따른 대기업 참여 제한에 따라 이러한 자동화된 대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도 있다.

2. 학교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

가. 학교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기존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네트워크 카메라(IP 카메라)를 포괄하고 있는 영상녹화 및 감시장치를 칭하는 용어으로써 개인 정보보호법에서 명명되고 정의된 법률 용어이기도 하다.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는 외형은 유사할 수 있으나, 네트워크 카메라는 인터넷을 통해 학교내를 벗어나 전 세계 어디서든 감시화면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학교(원)내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운데 네트워크 카메라는 인터넷 접속기능을 사용하지 않아 교내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에서만 한정되게 접근할 수 있는 인트라넷 방식의 폐쇄회로에서 운영되어 네트워크카메라도 CCTV와 동일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여러 가지 학교안전망 강화방안 가운데 인지도와 효과성이 가장 크다(문용린, 2009).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기원은 제2차 세계대전까지 거슬러 가며, 국내 공공기관의 경우 2002년 서울 강남구청에서 범죄예방 목적으로 시범운영하였다. 학교의 경우도 시설관리용으로 저화소 카메라를 일부 설치하여 운영되었으나, 2010년 초등학교 침입사건 이후 대대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교실 및 체육관 등 교권침해 우려 공간을 제외한 학교건물 외부나 실내 복도 등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다만, 2015년 5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교실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가 의무화된 어린이집과 달리,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유치원은 학교로 분류되어 교실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려면 교사와 학부모의 동의절차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 교실내 설치비율이 낮고 실외나 복도의 설치비율이 높은 점이 공립 유치원의 특징이기도 하다.

나. 단위학교에 하달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조사 공문서 현황

학교에서 연례적으로 처리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공문서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현황 등록 조사

개인정보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지역정보지원과)에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을 학교급별 정해진 담당자가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https://intra.privacy.go.kr>)에 접속하여 입력하게 된다. 이 결과를 매년 “2018년말 기준 공공기관 CCTV 100만대 돌파”처럼 언론 보도를 통해 우리가 설치현황을 접하게 된다.

이 시스템에 입력하는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정보로써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카메라 수량, 비공개 장소에 설치된 카메라 수량을 입력한다. 다음으로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목적별 분류 즉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교통정보 수집, 분석 및 제공에 해당하는 수량을 입력한다. 또한 촬영 사실을 고지하는 방법, 저장영상 보유기간, 영상정보처리방침 공개나 사전의견수렴현황, 정보제공내용, 관리감독실시현황 등의 입력이 있다.

조사항목별로 카메라 수량과악은 시설관리를 하는 행정실의 업무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영상정보처리방침 공개나 정보제공내용 등은 개인정보를 담당하는 교무실의 업무로 간주할 수도 있다. 공문서를 접수하고 시설담당자와 개인정보담당자에게 조사업무를 재분배하고 다시 시설자료와 개인정보자료를 수합 및 정리하여 공문서를 발송해야 하는 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대한 업무비중이나 소관부서 판단이 단위 학교에 맡겨져 있다.

2) 학생(유아)안전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 조사

교육부(학교생활문화과)에서 유치원을 제외한 초·중·고 학교급에 영상정보처

리기기 화소별 수량을 포함한 학교안전시설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배움터지킴이와 같은 학생안전 인력 현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에서 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실내부를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내역과 향후 설치계획을 조사하고 있다.

3) 각종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 조사

국회 국정감사, 시·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교육청 자체에서 필요에 의한 조사 등 비정기 조사가 있다.

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담당자 지정 사례 분석

최근 언론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를 교사가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업무로 여기고 있다고 한다(아시아경제 2018.11.01.).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교사와 행정직원 간 갈등도 드러나고 있다(한국교육신문 2017.11.21.; 경남도민일보 2018.5.30.).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으로 노력하거나(뉴스1 2019.11.04.), 갈등을 해결해야 할 교육청에서 학교내 교직원 간 갈등을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는 교원 노조의 주장과 학교 구성원 간 협의가 우선이라는 교육청의 주장이 대립하는 등 (에듀인뉴스 2019.05.10.) 광역시·도 간에도 대응에 있어서 온도차가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련해 드러난 문제에 대한 대책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조상식 등(2016)에 의한 업무담당자 지정(안)이나 경상남도교육청(2017)의 경남 단위학교업무표준(안)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련하여 업무를 구분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처리의 부당함을 진정하기도 하였다(경상남도의회, 2018).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학교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마련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의 혼란은 지속되고 있다.

3. 선행연구와 측정의 한계

교직원과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연구는 유치원에서 효용성과 교권침해와 관련하여 다수의 연구가 보고되어 왔다. 임수정 등(2013), 차선희 등(2016)은 교사들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보고하였다. 주주자(2014)는 중·고등학교에서의 교사 학생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인식을 보고하였다. 이들 연구는 과거 사회일반을 대상으로 한 연구 즉 표창원 등(2001)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사생활 침해, 황상민 등(2003)의 범죄예방기능 미흡 등의 과거 연구의 연장선에서 학교라는 공간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또한 이들 연구는 학교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이나 관리 주체를 두고 벌어지는 구성원 간의 역학관계와 여기에서 파생되는 갈등과 같은 민감한 사항에 대한 주제는 비껴가고 있다.

연구자가 측정하려는 계(System)의 외부나 주변에 위치하여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무자들의 갈등을 포착하고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더군다나 연구자가 계를 통할하는 위치에 있지 않아 계 전체를 공명시킬 정도의 충격을 가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충격에 대한 응답을 측정할 위치에 있지 않은 것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피상적인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Ⅲ. 연구 방법

1. 조사대상과 분석기준

세종시 교육청 관내 공립 학교급을 대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세 가지 유형의 교직원 간 행동양상을 조사하였다. 세종시 교육청은 교육감만 있고 산하 교육지원청이 없는 단층제 구조로써 지역교육과 광역교육 행정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에서 여타 시·도 교육청과 차이가 있다. 또한 2016년 이후 개교된 학교의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교사(校舎) 신축공사에 포함되어 설치 후 학교에 인계되고 있다.

가. 조사대상

전체 공립 학교급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써 연도별 대상 학교 수는 매년 3월 1일 기준이며, 연도별 학교급별 학교 수 차이는 신규 개교학교 학교(원) 수이다.

<표 1> 세종시 관내 공립학교 조사대상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6년 대상 학교 수	25	38	18	13
2017년 대상 학교 수	31	43	22	15
2018년 대상 학교 수	37	47	23	16
2019년 대상 학교 수	38	48	24	17

나. 조사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는 영상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누리집에 게재하여 정보주체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 시행령 제25조 및 제31조 제2항·제3항).

<표 2> 조사대상별 조사년도 구분

구분	행정안전부 등록현황조사	교육부 유치원 교실내 설치현황 조사
2016년 3월 개교 학교	2017년	-
2017년 3월 개교 학교	2018년	-
2018년 3월 개교 학교	2019년	-
2019년 3월 개교 학교	-	2019년

측정대상별 학교 수는 그 조사주체의 성격에 따라 기준시점이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 조사의 경우 매년 3월에 실시하며 전년도 말 기준으로서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조사수량은 2016년도 말 기준이다. 즉 2017년 개교한 학교급을 제외한 2016년 신설학교를 포함한 전체 학교급이 조사대상에 해당한다.

유치원 교실내 현황조사는 1차(5월 8일), 2차(5월 9일), 최종(6월 30일) 순으로 공문서 처리 담당자를 파악하였다.

2. 측정도구, 조사 내용 및 방법

가. 공문서 접수 담당자 통한 교직원간 영상정보처리기기관련 공문서 처리 행태 파악

공문서(이하 "공문"이라 한다.)라 함은 행정기관에서 사용되는 문장, 통계 및 도면으로 된 행정상의 일반 문서를 말한다. 이 가운데 행정상 공문서라 함은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이 직무에 따라 작성하거나 처리한 문서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문서를 말한다.

전자문서시스템은 공문의 기안·검토·협조·결재·시행·접수·배부·공람 등 문서 처리 절차가 전자적으로 진행되는 시스템이다. 전자문서시스템의 장점은 공문

을 발신하면 실시간으로 처리자와 처리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공문 접수 및 처리 시 지정된 담당자는 처리행위에 대한 법적책임이 부가되어 신중하게 처리된다. 공문 처리 자료는 타 방식의 설문조사 방식보다 자료의 객관성이 있다. 일단 결재가 완료된 문서는 이후조작이 불가하고, 반영구적으로 보존되고 향후 필요 시 점검이 가능하여 자료의 보존성 또한 타 방식보다 우수하다.

여타 광역시·도 교육청의 경우 시·군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공문을 학교급에 재시행하여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처리 상황을 실시간 파악하기 곤란하나, 교육지원청이 없는 세종시의 경우 단위 학교의 공문처리현황을 교육청 담당자가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교육부 유치원 교실내 설치현황에 대한 실시간 공문 처리자 확인도 전자문서시스템상에 기록된 처리자 및 수신(처리)일시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종교육청에서 소속 학교급에 발신하는 공문(대외문서)의 처리자를 파악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관련 행정처리 행태를 확인하였다. 법령에 근거한 공문시행에 따라 실험설계 시 대조군설정이나 무작위 배정이 불가능하여 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one group pre/post test)에 의한 전실험설계(pre experimental design) 단계에 그친 한계가 있다.

IV.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교직원의 행정행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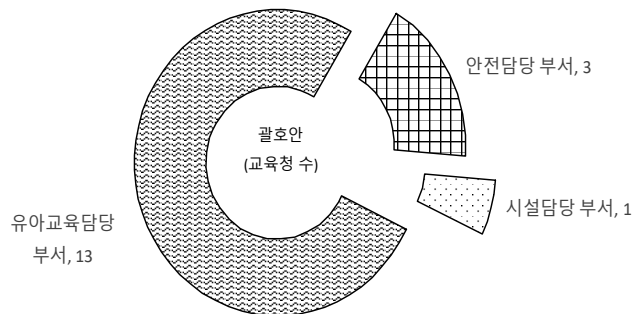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에 대한 단위 학교급별, 교직원별 행동 차이를 살펴보기 전에 시·도교육청 관계 부서의 공무처리행태를 확인하고자 한다.

2019년 4월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현황조사와 관련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발송한 공문을 접수한 담당 부서가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 유형은 유아교육관련 부서, 안전관련 부서, 시설관련 부

서에서 공문을 접수 및 처리하여 단일한 공문을 시·도교육청 단위에서는 다양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유아관련 교육정책의 일부분으로 파악하거나, 안전에 중점을 두거나, 기계장비로 간주하느냐에 따라 교육청별 다른 기준과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76%의 시·도교육청에서 유아관련 부서의 업무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일부는 안전으로 보거나, 세종시 교육청과 같이 시설관련 부서에서 처리한 사례도 있다. 이와 같은 전국 교육청의 공문처리 사례를 소개한 이유는 일선 학교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련된 갈등이 규모가 작거나 행정경험이 없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한편 시·도교육청에서도 하위기관에서 서로 다른 판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거나, 상기 교육부 공문처럼 하위기관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 모호한 당위적 서술형태의 공문을 발송하는 행정관청의 행태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공문접수 부서현황



[그림1] 전국 시·도교육청 유치원내 영상정보처리기 공문 접수부서

1. 학교급별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공문처리 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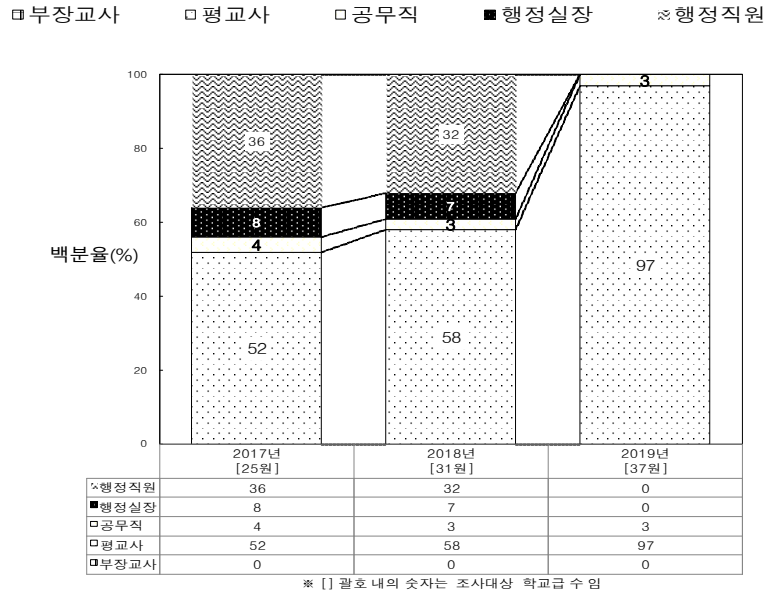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3월 시행하는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현황 등록”공문 접수 및 처리자를 전자문서시스템에서 학교급별로 확인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전년도 말까지 기간에 대한 학교(원)의 조사로써 예를 들어 2019년 조사의 경우 2019년 3월 개교한 학교(원)를 제외한 모든 학교급이 대상이 된다.

한편 2017년 및 2018년의 경우 세종시 교육청에서 학교급에 발송한 조사 공문에는 처리담당자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2019년은 공문에 처리 담당자를 명시하였다. 이를 통해 행정업무 처리행태 변화 여부를 전자문서시스템으로 확인하였다.

가. 유치원 교직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공문처리 행태

2017년 및 2018년의 경우 교사와 행정직원 간 공문처리 비율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교육청에서 처리 담당자를 명시한 2019년의 경우 97%의 유치원에서 교사가 공문을 접수 및 처리하였다. 나머지 3%(1개 유치원에 해당)는 공무원이 공문을 처리하였으며 학교 교무실에 해당하는 유치원의 원무실에 공무원이 소속되어 이 업무를 교무행정의 일부로써 처리하였다.

유치원 교직원 비율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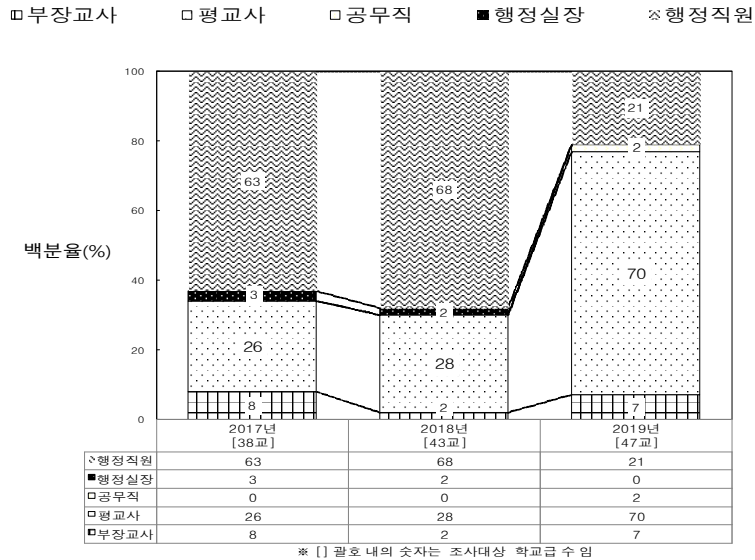
[그림2] 유치원 교직원의 행정안전부 공문 처리행태 변화 추이

나. 초등학교 교직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공문처리 행태

초등학교의 경우 2019년에 교사가 전담하는 비율이 상승하였으나 유치원과 같은 급격한 변화는 없었다.

타 학교급과 달리 2018년의 경우 교사의 공문처리가 감소하였다. 2019년의 경우 10개 초등학교에서 행정직원이 공문을 처리하였다. 이 가운데 6개교가 읍·면지역에 세종시 출범 이전인 연기군 시기에 존재한 학교이다. 나머지 4개교는 세종시 출범 이후인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 동(洞)지역에 신설된 학교였다.

초등학교 교직원 비율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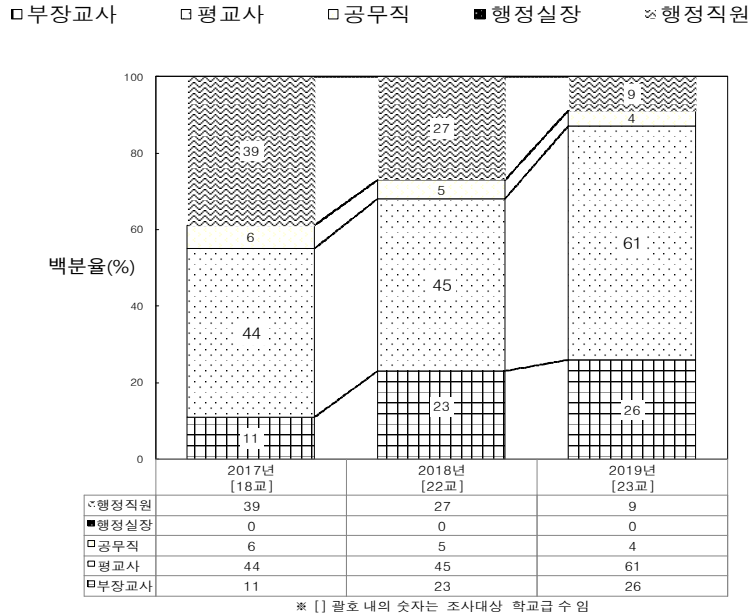
[그림3] 초등학교 교직원의 행정안전부 공문 처리행태 변화 추이

다. 중학교 교직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공문처리 행태

중학교의 경우에도 유치원과 초등학교와 같이 교사(평교사 및 부장교사)의 처리 비율이 증가하였다. 2017년의 경우 공무원직원을 포함해 61%가 교무실의 업무의 일부분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특히 2019년은 공무원직원을 포함해 91%가 교무실의 업무로써 처리하였다. 다만 조사기간 3년간 공문은 행정실장이 아닌 행정직원이 처리하였다. 2개교에서 행정직원이 공문을 처리하였으며, 이 가운데 1개교가 읍·면지역의 세종시 출범이전부터 존재한 학교다. 나머지 1개교는 2016년 동(洞)지역에 신설된 학교이다.

중학교 교직원 비율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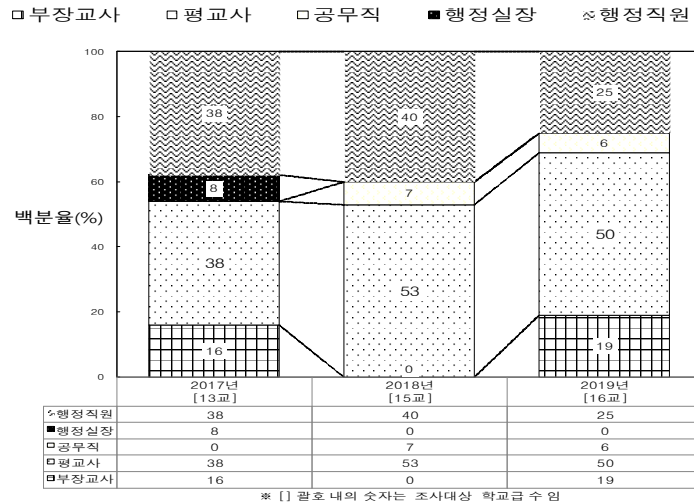


[그림4] 중학교 교직원의 행정안전부 공문 처리행태 변화 추이

라. 고등학교 교직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공문처리 행태

고등학교의 경우 교사(평교사 및 부장교사)의 공문비율 증가 폭은 크지 않았다. 중학교와 같이 2017년에도 교무실에 배치된 공무원직원을 포함해 62%가 교무실의 업무로써 처리하고 있었다. 2019년에 공무원직원을 포함해 75%가 교무실의 업무로써 처리하였다. 한편 2017년은 공문을 행정실장 1명이 처리하였으나, 이후부터는 공무원직원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교에서 행정직원이 공문을 처리하였으며, 동(洞)지역에 위치한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에 신설된 학교다.

고등학교 교직원 비율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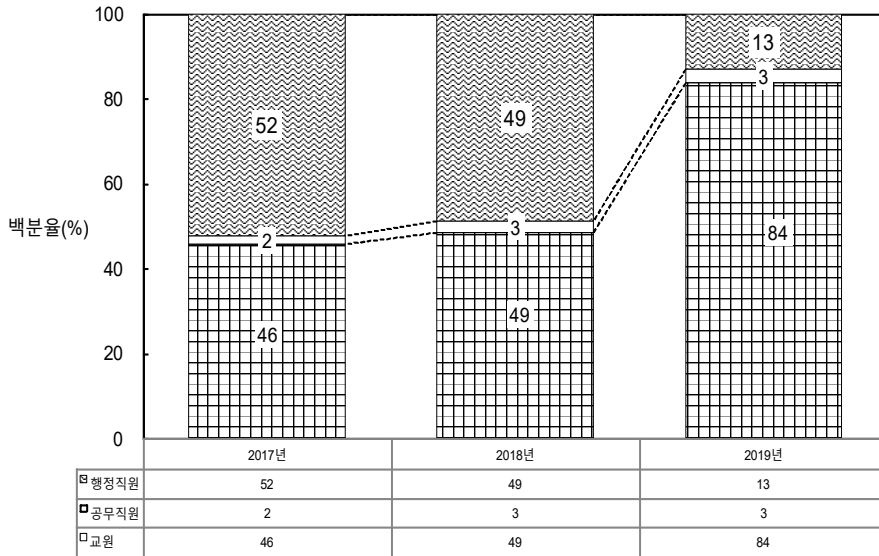


[그림5] 고등학교 교직원의 행정안전부 공문 처리행태 변화 추이

마. 연도별 교직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공문처리 행태 변화

앞에서 분석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3월 시행하는 공문 처리자를 학교급 구분 없이 교직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교사가 공문을 처리한 학교가 해마다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공문상에 처리자를 표시하지 않은 2017년 및 2018년과 비교해 공문 처리자를 표시한 2019년에 증가율이 높았다.

연도별 교직원 구성비 변화 추이



[그림6] 연도별 행정안전부 공문 처리행태 변화 추이

2. 유치원 교실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공문 처리행태

교육부에서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련 비정기 조사(2017년 조사공문시행, 2018년 조사공문 미시행)로써 2019년을 기준으로 세종시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발송한 조사공문 처리자를 확인한 결과이다.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하달한 공문에 정책(유치원 교실내 감시카메라 설치 확대)결정이 필요한 부분과 행정(기존 감시카메라 수량조사) 부분이 혼재되어 있었다. 교육부 공문에 비중이 있는 정책부분의 교권침해 이해당사자인 유치원 안전교사를 처리담당자로 명시하고, 설치수량을 파악하고 있는 “개인정보 및 시설관리 담당자 협조”로 표기하여 관내 유치원에 공문처리자를 명시하여 발송하였다. 이후 접수 및 처리담당자의 변화를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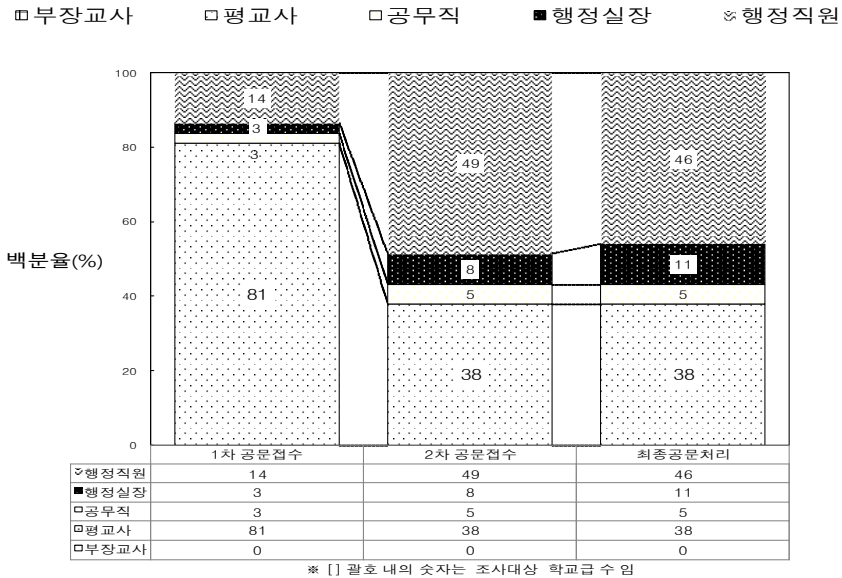
2019년 5월 8일 관내 유치원에 제1차 공문발송 이후 일부 유치원에서 접수 처리자 지정에 대한 안전교사의 민원이 발생하여 다음날 5월 9일 공문처리자 지정 문구를 삭제하여 제2차 공문을 관내 유치원에 발송하였다.

기존 영상정보처리기기 공문을 접수하지 않던 안전담당 교사에게 공문을 접수토록 명기한 것이 민원의 원인이었다. 일선 학교에서 업무분장은 교(원)장의 고유권한이나 교육 공동체 간에 협의를 통해 조절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관행이 있다. 앞에서 살펴본 유치원에서의 기존 업무처리자가 아닌 안전담당 교사에게 공문이 지정되어 기존 유치원내 업무분장과 상이하여 나타난 반응이었다.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처리자 지정을 확인한 결과 5월 8일 제1차 공문은 81%의 교사가 접수하였으나 5월 9일 제2차 공문시행 시 38%로 교사의 처리비율이 감소하였다. 이후 6월 25일 최종 공문처리 결과를 전자문서시스템에서 확인 시 11%(4명)의 행정실장이 공문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안전담당교사는 정보담당교사와 달리 영상정보처리기기 공문처리를 거부하는 현상이 있었다. 이는 교실내 괴롭힘 등 안전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감시 카메라 설치에 따른 업무관련자이면서 이해당사자이기도 한 안전담당 교사의 업무처리 단면이기도 하다.

유치원 교실내 감시카메라 공문접수 교직원 비율 변동 추이



[그림7] 유치원 교실내 감시 카메라 설치 공문접수 교직원 변동 추이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다음의 특색이 있다.

그동안 막연하게 일부 단위학교의 사례로 보고되었던 영상정보처리기기관련 업무수행 유형을 학교급별·교직원별 교육청 단위로 파악하였다. 학교급별·교직원별 영상정보처리기기관련 업무 배분을 정량적인 자료로 제시하였다. 조사 방법 또한 면담이나 설문조사가 아닌 공문처리에 의한 행정행위의 결과를 원시자료로써 활용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과 달리 공문내 처리자 지정이라는 외부 요인을 통해 처리행태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공문처리자 지정에 따른 외부요인을 가해 학교급별·교직원별 처리행태 변화

를 계량화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급별 공문처리 행태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가. 개인정보업무로써 학교급별 영상정보처리기기관련 공문처리행태 상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공문 처리자 지정 시 수용도는 낮았다. 다만 학교급별로 교사가 영상정보처리기기 공문을 처리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공문상에 처리담당자 명시를 한 것이 주요 변화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유아안전업무로써 유치원 교실내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관련 공문처리행태 상이

개인정보업무와 달리 영상정보처리기기관련 공문을 안전담당업무로써 공문 처리자 지정 시 접수와 처리에 대한 수용도가 낮았다. 공문처리자 지정 및 해제라는 장치를 통해 관찰한 교직원 간 공문처리자 변화는 역동적이었다. 공문 처리자 지정 해제 시 행정직원에서 교사로 이동하는 비율이 크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상정보처리기기과 관련한 단위 학교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육청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분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갈등을 줄이려는 노력을 한다면 학교장의 부담을 덜어주거나 효과적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기여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학교에는 다양한 구성원이 있어 영상정보처리기기관련 공문시행 시 공문의 특성을 명확히 하여 교육현장에서의 혼란 및 갈등을 최소화하는 상위관청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학교급별로 학생(유아)안전, 개인정보, 시설물 관리 담당자가 구분되어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여기에 모두 해당되거나 중첩되어 공문의 의도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교육청에서 공문처리자를 지정하는 방법을 통해 교직원의 공문처리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교육행정기관에서 업무처리의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실험대상의 구성이나 실험방법상의 한계가 있었다. 단일군 설정에 그친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조군 설정과 무작위 배정을 통한 실험설계 단계로 진행이 필요하다. 보편타당한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학교 구성원이 가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처리행태와 이해관계 등에 대한 면담이나 설문 조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질적인 분석과 접근을 통해 본 연구를 보완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후속연구에서는 개인정보 혹은 학생안전 등 구체적인 업무 구분을 파악하여 교사 간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의 상세구분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와 학생안전 담당 교사 간의 갈등을 파악하지 못한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개별 물품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다양한 목적으로 다수의 상급기관에서 실태조사나 현황파악을 단위학교에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특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소위 "목적별 운영"이라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이는 盲人摸象 고사에 등장하는 코끼리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비유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특정 목적으로 특정 담당자의 업무로 정의할 수 없는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의 모호성이 유발하는 교직원 간의 갈등은 해결해야 할 부작용이다.

최근 도입하고 있는 고화소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복잡하고 다루기가 힘들다. 심각해지는 학교폭력과 높아지는 학부모의 녹화영상 열람요구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는 기피대상이 되고 있다. 초임교사나 신입직원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를 부과하는 폭탄돌리기식 대응으로는 적절한 상황대처를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진행형인 교사와 행정직원 간 갈등 해소의 연장선에서 현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 폭력관련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임용하는 것처럼, 영상정보처리기기과 관련된 설계·시공·보수·민원대응의 전 영역에 걸쳐 전문성 있는 외부 인재를 시·도교육청에 배치하여 변화하는 학교의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교육당국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경상남도교육청(2017).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를 위한 단위학교 업무표준안, 경남 단위 학교 업무표준안 [학교혁신과-2495(2017.2.9.)], 경상남도교육청
- 경남도민일보(2018.5.30.). 교원업무, 더는 행정실로 전가하지 말라. (검색일2020.7.26.)
- 경상남도의회(2018). 교사의 CCTV 기기 업무 부과로 인한 수업권 침해 및 학생의 학습권 침해, 2018.03.22., 경상남도의회 <https://council.gyeongnam.go.kr/> HOME > 열린의정 > 진정서접수, (검색일2020.7.26.)
- 뉴스1(2019.11.04.). 제주 학교 행정혁신안 윤곽...“정원 늘리고 업무 표준화” <https://www.news1.kr/articles/?3760505>(검색일2020.7.26.)
- 문용린(200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서울 대학교 산학협력단, 2009. 11.
- 박종관 외(2016). 교육부소속 지방공무원의 소속이관에 관한 연구. 정책제도연구원
- 배병룡 외(2006). 교육조직내 갈등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0(1), 1-21.
- 신현석(2013). 교원업무 정상화를 위한 학교내 인력구조 개선 및 학교직원(Nonteaching group)의 업무 개선 방안, 2013년 12월 30일, 수탁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 아시아경제(2018.11.01.). 내가 교사인지, 행정직원인지"...대전교사 열에 여덟, 행정업무 과중에 '시름' (검색일2020.7.26.)
- 우상수(2014). 학교 내 업무영역 갈등 연구: 초·중등학교 환경위생관리자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 임수정, 이일량, 이대균 (2013). CCTV와 함께 생활하는 유아교사 이야기. 어린이문학 교육연구, 14(3), 433-453
- 조상식(2016). 교원 행정업무 경감 매뉴얼, 2016년 2월,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원
- 주주자(2014). 학교 내 CCTV에 관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 경기도 소재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회학회 vol.24, no.4, pp.151 - 181
- 차선희, 이진숙(2016) 영유아 교육기관의 CCTV 설치에 대한 교사의 경험 비판사회정책 (51), 2016.05, 292-325(34 pages)
- 표창원 박기남(2001). 범죄취약지 CCTV 등 범죄감응장치 설치에 관한 연구, 「치안논집」, 17: 579-689
- 한국교육신문(2017.11.21.). 교사 무너지면 학생도...‘교사 소진’ 대책 시급 (검색일

2020.7.26.)

황상민(2013). 주택가 감시카메라(CCTV) 설치 : 감시카메라의 심리 : 교육정책과 편의 지향성의 결과 國會報. 443호 (2003. 9), pp.86-88

Abstract

Perception of CCTV operation through administrative action in schools : Focus on public schools in Sejong

Hyrk-Choon Kwon
Sunchon National University

Purpose: School safety has recently become an important issue. In order to make a school environment safer, surveillance cameras have been installed in the facilities. The number of installations has been increasing rapidly since they have been considered widely recognizable and highly effective. However, conflicts between faculty and staff in installing and operating the system have also been increasing. In terms of school safety, these individuals' cooperation is more than necessary. It is judged that looking into how they perceive the system could provide us with some suggestions on how to manage the related issu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perspective of faculty over closed-circuit television (CCTV) and make suggestions by analyzing their actions.

Approach: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I surveyed administrative actions such as the processing of official documents and CCTV policies for teachers and administrative staff of public schools in the Sejong Office of Education. In addition, I analyzed the behavior of those managing personal information and school safety-related documents along with the degree of complying with the policies.

Finding: First, the correspondence rate of documents was high when there were designated document processors. Second, the acceptance level of documents in preschool was relatively low when there were designated processors. Third, the degree of accepting the policies and complying with them was higher in newly

established schools than in existing schools. I found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how to handle the CCTV operations and the related work among the two groups of participants. In addition, I made suggestions on how to resolve the conflicts between them.

Value: In this study, the education authorities quantified and measured the recognition and acceptance of faculty and staff regarding CCTV at each school level. Results showed that the active role of education authorities can make positive changes in how faculty and staff perceive the CCTV system and the problems surrounding it through school administrative action. In this regard, these results are meaningful in reducing the conflicts among the two groups and improving the organizational culture.

Key words: conflicts between school faculty and administrative staff, closed-circuit television, administrative action, educational administration

논문투고일자: 2020.07.31.

논문심사일자: 2020.08.18.

게재확정일자: 2020.08.29.